5. 한국해양조사협회

◈ 총괄요약표

부문	평가지표	비계량		계 량		합 계	
		가중치	등급	가중치	득점	가중치	득점
경영관리	1. 국민평가			5	4.745	5	4.745
	2. 업무효율 - 사업수행 효율성			5	5	5	5
	3. 재무예산성과					7	6.628
	(1) 재무예산 성과 - 예산 집행률			1	0.892	1	0.892
	(2) 계량관리업무비			6	5.736	6	5.736
	4. 보수 및 복리 후생 관리					11	5.4
	(1)보수 및 복리후생	6	E^+			6	1.8
	(2)총인건비 인상률			3	3	3	3
	(3)노사관리	2	E^+			2	0.6
주요사업	1. 주요사업 성과 관리의 적정성	10	E^+			10	3
	2. 선박의 안전항해를 위한 정보제공						
	- 전자해도 업데이트 오류율 최소화			8	6.907	8	6.907
	3. 고품질 수로조사 자료 생산체계 구축						
	- 고품질 수로조사 자료생산 기반 강화			4	2.432	4	2.432
	- 수로조사 성과심사 업무 실적			6	4.135	6	4.135
	4. 수로기술 연구역량 강화						
	- 수로기술 연구 활동능력 향상			2	2	2	2
소계							40.247
감점(정보공시 + 사고)							0.25
득점							39.997

종합평가결과	탁월	우수	양호	보통	미흡	아주미흡

1 현 황

기관의 미션

○ 정확한 해양정보를 제공하여 해양산업 발전에 기여

기관 현황

기관유형	○ 기타공공기관
기 관 장	○ 서기석
설립근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주요사업	○ 수로도서지의 인쇄·공급 및 재고관리 ○ 수로조사 성과의 심사 및 수로조사 방법에 관한 기술지도 ○ 수로조사에 필요한 관측시설의 관리 ○ 수로기술자 교육 및 경력관리 ○ 영해기준점표지의 유지·보수 및 관리
조직 / 정원	○ 이사장, 2부 1연구소 1실 / 정원 45명
2016예산	○ 6,248백만원

2 총 평

○ 기획재정부 주관 '16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기관의 고객만족도 점수는 88.9점으로 전년도의 85.1점에 비해서 3.8점 상승하였다. 기획재정부가 부여한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의 상대등급이 A등급을 획득하였다.

○ 기관의 업무효율은 기관의 업무특성을 반영한 사업수행효율성 지표로 평가하였다. 기관은 수로도서지 전자해도 국외 판매수익과 연구수주 실적 증가에 따라 매출액이 전년도에 비해 16.3% 증가하였으며 총수익 또한 전년에 비해 15.61% 증가하였다.

○ 재무예산성과 지표인 예산집행률은 86.447%로 평점 89.158점으로 평가하였다. 이는 경상경비 등에서 낮은 예산 집행률을 보였기 때문이다.

○ 계량관리업무비 지표상 매출액은 전년대비 16.25% 증가한 6,717 백만원이었고

2016년도 관리업무비는 전년과 비슷한 1,211 백만원이었다. 2016년도 계량관리업무비는 0.180 로 기준치(직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실적 중 작은 것)보다 낮아 평점 95.598 점을 획득하였다.

○ 정부권고안에 따른 성과연봉제의 보수체계를 구축했으며, 연봉체계도 기본연봉, 성과연봉, 그리고 기타수당 등으로 단순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평가제도의 경우에 조직성과와 개인성과 간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긍정적인 평가가 가능하다. 다만, 조직평가와 개인평가 간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평가수단과 내용 등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은 향후에 보완할 부분이라고 판단된다. 2016년 9월에 실시한 근무만족도조사 결과, 성과평가제도에 대한 이해도와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부분 등은 긍정적인 평가가 가능하지만, 임금피크제의 도입을 통한 중장기 신규채용 등의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 ’16년도 총 인건비 인상률은 2.414%로 정부의 예산편성지침 3.0%를 준수하여 득점 3점으로 평가하였다. 기관은 법정 수당 외 제수당을 폐지하는 등 급여 체계 개편 등으로 총인건비 인상률 기준을 준수하였다.

○ 다양한 추진전략을 통해서 노사 선진화를 이행하려는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대부분의 추진전략의 성과를 횟수와 시간 등으로 제시함으로써 산출지표를 중심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사관계의 관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관리자, 노무담당, 그리고 일반직원을 구분해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이와 같은 노력이 단순하게 몇 시간 교육을 받았는지 등과 같은 산출지표로 관리되기 보다는 교육이수를 통해서 어떤 면이 개선되고 강화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 기관은 주요사업의 추진계획을 적정하게 수립·집행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각 사업별로 비교적 긍정적 성과를 달성한 점이 인정된다. 다만 경영전략 체계 재설정에도 불구하고 SWOT 분석에 기초한 일부 전략체계가 추상적이고 연계 또한 미흡하며, 주요사업의 우선순위 선정기준이 모호하고, 제시된 계량지표중 일부가 여전히 부분 산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지표의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 계량지표

- 기관은 ‘전자해도 업데이트 오류율 최소화(8점)’(선박의 안전항해를 위한 정보 제공사업), ‘고품질 수로조사 자료 생산기반 강화(4점)’, ‘수로조사 성과심사 업무 실

적(6점)'(이상 고품질 수로조사 자료 생산체계 구축사업), '수로기술 연구 활동능력 향상(2점)'(수로기술 연구역량 강화사업) 등 3개 사업의 4개 계량지표를 관리하고 있다.

- 기관의 성과제고를 위한 적극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로기술 연구 활동능력 향상' 지표를 제외한 나머지 지표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 주요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한 지속적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3 부문별 평가

Ⅰ. 경영관리

총 평

1. 국민평가

○ 기획재정부 주관 '16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기관의 고객만족도 점수는 88.9점으로 전년도의 85.1점에 비해서 3.8점 상승하였다. 기획재정부가 부여한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의 상대등급이 A등급을 획득하였다.

2. 업무효율

○ 기관의 업무효율은 기관의 업무특성을 반영한 사업수행효율성 지표로 평가하였다. 기관은 수로도서지 전자해도 국외 판매수익과 연구수주 실적 증가에 따라 매출액이 전년도에 비해 16.25% 증가하였으며 총수익 또한 전년에 비해 15.61% 증가하였다.

평가지표별 평가 결과

1. 국민평가

○ 기획재정부 주관 '16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기관의 고객만족도 점수는 88.9점으로 전년도의 85.1점에 비해서 3.8점 상승하였다. 또한, 기획재정부가 부여한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의 상대등급이 A등급을 획득하였다. 고객만족도 조사결과와 가점(6점)을 합산한 고객만족도 평점은 94.9점이었다.

○ 기획재정부의 2016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에 따르면, 2016년도는 평가년도 조사결과와 전년도 점수의 향상도 비교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평가년도 조사결과만 사용하여 지수를 산출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 결과, 고객만족도 평점(88.9점)과 상대등급(A등급) 가점 6점을 합산하여 고객만족도 지수가 94.9점이었다. 따라서 국민평가(고객만족도) 득점점수는 5점 만점 중 4.745점을 획득하였다.

○ 고객만족도 조사결과에 근거할 때, 기관은 2015년에 비해 고객만족 증진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2015년 조사대상 집단인 수로도서지 공급 및 관리, 수로조사 성과심사 분야의 2016년 고객만족도가 약 4점이상 상승하였다. 또한, 2016년에 새롭게 조사대상에 포함된 수로기술자 경력관리분야 고객의 만족도가 90.5점의 높은 점수를 획득하였다. 다만, 수로기술자 교육훈련분야의 고객만족도가 80.9점에 머물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고객만족 제고 노력을 기울일 필요성이 있다.

2. 업무효율

○ 기관의 업무효율은 기관의 업무특성을 반영한 사업수행효율성 지표로 평가하였다. 사업수행효율성 산출에 필요한 순사업비는 전년도 2,288,528,227원에 비해 약 26.29% 증가한 2,890,150,941원으로 파악되었다. 사업수행효율성 산출에 필요한 평균인원은 전년도 51.462명보다 약 2.46명 증가한 53.923명으로 파악되었다. 이를 근거로 한 사업수행효율성 실적치는 53,597,664로 산출되어 전년도의 44,470,653보다 크게 높아진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이를 근거로 한 사업수행효율성 평점은 100점으로 산출되었으며 5점 만점을 적용하여 5점을 득점하였다.

○ 기관은 수로도서지 전자해도 국외 판매수익과 연구수주 실적 증가에 따라 매출액이 전년도에 비해 16.25% 증가하였으며 총수익 또한 전년에 비해 15.61% 증가하였다. 반면에, 업무추진비 등 사업비성경비의 절감을 노력을 적극적으로 도모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사업수행효율성을 산출하는 요인인 기관의 평균인원은 2016년에 53.92명으로 전년대비 4.8% 증가하였다.

○ 기관의 사업수행효율성을 상승시킨 주된 요인인 순사업비의 증가는 적극적인 매출증대 노력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평균인원의 소폭 증가는 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적극적인 경비절감노력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기관의 사업수행효율성은 매우 안정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3. 재무예산성과

(1) 재무예산성과(예산집행률)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 점	가중치	득 점
예산 집행액 / 예산 현액	목표대 실적	100	86.447	89.158	1	0.892

나. 평가내용

- 기관의 예산집행률 제고를 유도하기 위한 지표로서, 예산현액 대비 예산 집행액을 목표대 실적으로 평가하였다.

- '16년도 예산집행률은 목표치 100% 대비 실적치 86.447%로 평점 89.158점으로 평가하였다.

다. 항목별 원인분석

- 예산 집행률은 경상경비 등에서 낮은 예산 집행률을 보여, 전체적으로 86.447%의 실적을 달성하였다.

(2) 계량관리업무비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 점	가중치	득 점
관리업무비 / 매출액	목표부여 (편차)	0.174	0.180	95.598	6	5.736

나. 평가내용

- 관리업무비 절감을 유도하기 위한 지표로서 관리업무비를 매출액으로 나눈 계량

관리업무비를 5년 목표부여(편차)로 하향 평가하는 지표이다.

- ’16년도 계량관리업무비는 0.180 로 최고목표치 0.174를 초과하여 평점 95.598 점으로 평가되었다.

다. 항목별 원인분석

- 매출액은 전년대비 16.25% 증가한 6,717백만원이었다.
- 2016년도 관리업무비는 전년과 비슷한 1,211백만원이었다. 2016년도 계량관리업무비는 0.180 로 기준치(직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실적 중 작은 것)보다 낮아 평점 95.598 점을 획득하였다.

라. 추세분석

- ‘매출액’은 2013년 4,913백만원에서 2016년 6,717백만원으로 동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관리업무비’는 ’13년 989백만원에서 ’16년 1,211백만원으로 동 기간 동안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다.

4. 보수 및 복리후생 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 정부권고안에 따른 성과연봉제의 보수체계를 구축했으며, 연봉체계도 기본연봉, 성과연봉, 그리고 기타수당 등으로 단순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과연봉의 비율은 정부가 권고한 비율보다 높게 책정함으로써 성과중심의 보수관리를 지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성과중심의 보수관리가 단순히 성과연봉의 비율을 높게 책정한 것으로 실행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성과평가체계의 고도화와 객관화, 그리고 공정성 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기존 수당을 통폐합해서 신설한 직무급제도 보수체계의 단순화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직무급제도는 해당 직무에 대한 난이도와 기준 등이 명확한 근거를 통해 책정되지 못한 점 등은 향후 개선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직무급을 노사합의를 통해 결정하기 보다는 보다 객관적인 노력, 예를 들어 조직진단 등을 통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직무값을 계산한 후에 이를 직무급으로 적용한다면 직무성과 중심의 성과연동형

보수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

○ 성과평가제도의 경우에 조직성과와 개인성과 간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긍정적인 평가가 가능하다. 다만, 조직평가와 개인평가 간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평가수단과 내용 등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은 향후에 보완할 부분이라고 판단된다. 즉, 단순하게 2급 이상은 경영평가 30%와 개인평가 70%의 비율을 통해 성과평가를 측정하는 것은 개인-조직평가 간 연계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다. 이에 덧붙여, 2급 이상의 성과계약평가에서 70%를 차지하고 있는 개인평가를 이사장이 평가하는 체계가 과연 공정하고 객관적인지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3급 이하의 근무성적평가 중에서 40%를 차지하고 있는 개인평가는 주로 비계량지표를 통해서 부서장이 평가하는 체계도 향후에 고민할 대상이라고 판단된다. 가급적 비계량지표와 비중을 감소시킴으로써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의 기준과 내용을 구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 2016년 9월에 실시한 근무만족도조사 결과, 성과평가제도에 대한 이해도와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결과에 대한 기관의 계획이 무엇인지가 더욱 중요하며, 조사결과를 향후 기관운영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집행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또한, 성과평가체계에 대한 만족도를 2017년에 실시함으로써 문제점과 불만요인, 성과평가체계의 비중, 계량 및 비계량지표의 활용 등에 대한 환류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화 전략 등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 고졸자 관리직 비율을 20% 이상 유지하는 것과 차별없는 보수·복리후생제도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고졸자 관리직 비율을 20%로 유지하는 것은 오히려 역차별 문제가 발생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성의 관리직 비율 확대 등에 오히려 부정적인 평가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역량 등을 바탕으로 승진 및 관리직으로의 진출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으며, 해당 제도 등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덧붙여, 비금전적 복리후생제도의 실제적인 제도화와 관심도 현재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즉, 체력증진을 위한 탁구대 구입 등이 유일한 비금전적 제도로 평가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차원에서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비금전적 제도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가정의 날 운영과 유연근무제 도입 등은 일·가정 양립 차원에서 고려할 부분이기 때문에 비금전적 복리후생제도에 대한 보다

높은 관심이 필요함을 지적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복리후생제도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한 후에 기관 차원에서 어떤 추가적인 노력이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도 아쉬운 부분으로 평가된다.

○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부분 등은 긍정적인 평가가 가능하지만, 임금피크제의 도입을 통한 중장기 신규채용 등의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임금피크제 적합 직무의 개발에 대한 계획은 미수립 상태이며, 직무재배치와 직무재교육 등에 대한 계획도 구체화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임금피크제의 도입을 통해 기관이 기대하는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제도적 노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준비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총인건비 인상률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 점	가중치	득 점
정부예산편성지침 준수여부	목표부여	3.000%	2.414%	100	3	3.000

나. 평가내용

- 기관의 인건비 인상률 관리 노력을 통해 경영효율성 제고를 유도하기 위한 지표로서 정부예산편성지침의 인건비인상률 3.0% 준수여부로 평가하였다.

- ’16년도 총 인건비 인상률은 2.414%로 정부의 예산편성지침 3.0%를 준수하여 득점 3점으로 평가하였다.

다. 항목별 원인분석

- ‘16년도 총인건비는 실집행액 기준 전년대비 약 204백만원 증가하였고, 증원소요 인건비 조정액은 156백만원 발생 등으로, 총 인건비는 2,075백만원되어, 2015년 대상 인건비 2,026백만원으로 총인건비 인상률은 2.414%로 예산편성지침의 총인건비 인상률 기준을 준수하였다.

- 기관은 법정수당외 제수당을 폐지하는 등 급여 체계 개편 등으로 총인건비 인상률 기준을 준수하였다.

(3) 노사관리

○ 다양한 추진전략을 통해서 노사 선진화를 이행하려는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대부분의 추진전략의 성과를 횟수와 시간 등으로 제시함으로써 산출지표를 중심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출지표를 중심으로 성과를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접근방법은 해당 노력을 통해 어떤 결과 및 성과지표로서의 실적을 도출했는지 여부, 그리고 해당 성과가 향후 기관운영에 어떤 점을 개선했는지에 대한 논의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불합리한 관행의 개선을 위한 '노사 공동 TF'의 구성 및 운영의 결과도 어떤 면에서 인사와 보수체계가 변화했고, 이에 대한 직원의 만족도와 평가는 어떠한지, 그리고 해당 개선내용이 향후 기관의 운영과 성과평가체계 등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자료 제시는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 노사관계의 관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관리자, 노무담당, 그리고 일반직원을 구분해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이와 같은 노력이 단순하게 몇 시간 교육을 받았는지 등과 같은 산출지표로 관리되기보다는 교육이수를 통해서 어떤 면이 개선되고 강화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역할증대를 위한 내실화도 어떤 측면에서 내실화가 이루어졌는지, 내실화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지, 해당 노력 등을 통해서 노사관계가 어떻게 발전했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실적이 제시되어야 한다.

Ⅱ. 주요사업

총 평

○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 기관은 주요사업의 추진계획을 적정하게 수립·집행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각 사업별로 비교적 긍정적 성과를 달성한 점이 인정된다. 다만 경영전략 체계 재설정에도 불구하고 SWOT 분석에 기초한 일부 전략체계가 추상적이고 연계 또한 미흡하며, 주요사업의 우선순위 선정기준이 모호하고, 제시된 계량지표중 일부가 여전히 부분 산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지표의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기관은 각 사업별로 비교적 긍정적 성과를 달성한 점이 인정되나, 일부 주요사업의 수행 방식 개선, 역량강화 등을 위한 체계적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기관의 주요사업별 비계량성과가 대부분 설립목적, 경영목표 및 정부정책의 달성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며, 특히 온라인 항해정보시스템 구축 및 결측·오류 유형별 분석에 기초한 체계적 관리를 통해 이용자의 편의성 제고와 오류예방 활동의 강화에 기여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 외에도 기관 계량지표들의 기관 설립목적(임무)와의 연계성이 인정되며, 목표수준의 설정은 비교적 적극적인 편으로 평가된다. 다만 기관 개선 노력에 불구하고, 사업의 변화 반영, 핵심기능 중심의 지표 관리, 그리고 목표설정의 적정성 확보 등 지표체계에 대한 중장기적 차원의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계량지표

- 기관은 '전자해도 업데이트 오류율 최소화(8점)'(선박의 안전항해를 위한 정보 제공사업), '고품질 수로조사 자료 생산기반 강화(4점)', '수로조사 성과심사 업무 실적(6점)'(이상 고품질 수로조사 자료 생산체계 구축사업), '수로기술 연구 활동능력 향상(2점)'(수로기술 연구역량 강화사업) 등 3개 사업의 4개 계량지표를 관리하고 있다.
- 기관의 성과제고를 위한 적극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로기술 연구 활동능력 향상' 지표를 제외한 '전자해도 업데이트 오류율 최소화', '고품질 수로조사 자료 생산기반 강화', '수로조사 성과심사 업무 실적' 지표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 지속적인 성과 제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과제별 평가 결과

1.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비계량)

(1) 주요사업 추진계획은 구체적으로 적정하게 수립되었는가?

○ 기관은 전년도 경영전략체계의 개편을 통해 '정확한 해양 정보를 제공하여 해양산업 발전에 기여한다'라는 미션의 달성을 위해 '안전하고 행복한 바닷길로 안내하는 해양정보 전문기관'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주요사업으로 '선박의 안전항해를 위한 정보 제공', '고품질 수로조사 자료 생산체계 구축', '수로기술 연구역량 강화'를 설정하였다. 동 과정에서 기관의 설립 목적 및 비전, 경영전략을 반영하고, 특히 전년도 경영평가단의 의견을 반영하여 대·내외 환경분석, 내·외부 의견수렴 등을 거쳐 경영전략 체계를 재설정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경영전략 체계 재설정에도 불구하고, '해양산업 발전에 기여한다'는 미션과 관련된 전략 등이 제시되지 않고 있으며, SWOT 분석에 기초한 일부 전략체계

가 추상적이고 연계가 미흡하여 보완이 필요하고, 특히 주요사업의 변화(예를 들어 2018년 국가기본도 사업의 종료) 등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 기관이 설립목적 및 경영전략과의 부합성을 고려하여 주요사업을 선정하고, 내·외부 이해관계자의 참여하에 정책중요도, 자원배분 등 핵심과제 선정기준에 따른 우선순위를 반영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주요사업의 우선순위 선정기준이 모호하며, 제시된 성과목표도 추상적임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기관이 영국 수로국,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국내외 관련 기관에 대한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이를 기초로 기관계량지표 개선 의견을 제시하고 주요사업별 성과지표로 활용하는 등의 노력을 수행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제시된 계량지표가 종이해도 최신화 실적, 수로기술 연구활동 능력 향상 등 여전히 부분적인 산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 기관은 주요사업 성과목표 달성을 위해 중장기 경영계획과 연계한 주요사업별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예산, 인력 등 전략적 자원배분을 추진하였으며, 추진과정에 대한 주기별 내·외부 모니터링 및 평가를 통해 사업성과를 분석·환류하는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 결과 전년도에 비해 주요사업별 실행계획과 모니터링 및 환류체계의 적정성이 제고된 점은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 다만 중장기 로드맵의 실현의 실현가능성 제고를 위한 구체성 확보와 함께, 특히 예산·인력 등 자원배분계획과 연계된 기관의 체계적 세부 추진계획 수립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주요사업별 추진계획이 적절하게 집행되었는가?

○ 기관은 선박의 안전 항해를 위한 정보 제공을 위해 전자해도의 경우 ECDIS TRANSAS 등 최신 장비를 도입하고 업무절차를 개선하였으며, 종이해도의 경우 인쇄방식 및 절차 간소화와 표준매뉴얼 배포 등의 노력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전년대비 전자해도의 오류율이 약 22.1% 감소하였으며, 인쇄파일 제작 수량이 50% 감소하는 성과를 달성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그리고 전자해도 자동다운로드 서비스를 실시하고 최신 종이해도 공급량을 전년대비 13% 증가함으로써, 고객 불편의 감소와 신속한 해양 정보 제공 및 기관의 수입 증대에 기여하였으며, 국가기준점 유지관리의 강화를 통해 국가기준점 이력관리의 최신화에도 기여하였다.

○ 기관은 고품질 수로조사자료 생산체계 구축을 위해 해양조사자료 생산시설 검증 강화, 원격전원제어시스템 구축 확대, 결측·오류발생 유형별 분석 및 개선 등의 노력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전년대비 인원당 점검 효율성이 약 18.1% 증가하고 해양관측자료 결측률이 약 1.3% 감소한 것은 긍정적이나, 원격전원제어시스템 구축 확대에 의한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 그리고 고품질 수로조사자료 검증 기반 확대를 위해 성과심사 물량의 추세분석을 통한 3단계 업무처리 개선, 심사자 역량 강화 및 품질관리 기반 조성을 위한 3대 개선과제 선정 추진, 사전오류 방지를 위한 3W에 기초한 현장기술지도 추진 등의 노력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전년대비 건당 처리일 수가 6.2% 단축되었고, 고객만족도도 4.5점 증가하였다. 다만 성과심사업무 홍보 활동의 경우 광역자치단체 등 19개 기관에 대한 직접 방문홍보를 실시하였는데, 대상 기관의 특성을 감안한 홍보와 수요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기관은 수로기술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수로분야 R&D 기능 강화, 연구역량 강화를 통한 연구성과 확산 등을 실시하였는데, 한국형 e-Navigation 서비스체계 구축 등 정부 R&D 사업 수주가 전년대비 81.3% 증가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전년대비 논문 게재, 세미나 발표 등 연구 성과 확산 실적이 증가하였으나(0건→2건)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 그리고 수로기술 교육훈련 기반 확립을 위해 교육품질 제고, 체계적 교육훈련 운영 등 3대 중점 과제를 실시하고, 교육훈련 효과 제고를 위해 현업적용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현업적용도 조사를 통한 현장실무 역량 향상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현재 기관의 역량을 감안할 때 수로기술인력 전문교육기관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기관은 주요사업별 추진활동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한 결과, 주요사업의 계량목표가 상승하였으나,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현안에의 대응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그리고 업무효율성외에 예산 절감 등 기타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관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주요사업별 비계량적 성과는 적정한 수준인가?

○ 기관이 주요사업별로 설정한 비계량지표의 성과에 대한 검토 결과, 대부분 설립목적, 경영목표 및 정부정책의 달성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온라인 항해

정보시스템 구축 및 결측·오류 유형별 분석에 기초한 체계적 관리를 통해 이용자의 편의성 제고와 오류예방 활동의 강화에 기여하였다.

○ 기관이 선박의 안전항해를 위한 정보 제공사업의 비계량지표로 '온라인 항해 정보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국가기준점 관리 강화'를 설정하고 노력한 결과, 이용자 확대 기반을 마련하고 해양영토 관리 강화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체계적 수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수행 결과에 대한 환류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기관이 고품질 수로조사 자료생산체계구축사업의 비계량지표로 '해양관측자료 결측·오류 사전예방 노력', '성과심사 업무 확대를 위한 노력', '고객니즈 활동 강화'를 설정하고 노력한 결과, 해양관측자료의 결측·오류 예방과 개소당 점검 효율성의 증가에 기여하였으나, 성과심사업무 확대를 위한 체계적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기관이 수로기술 연구역량 강화의 비계량지표로 'R&D 연구활동 추진성과'와 '교육품질 향상 노력'을 설정하고 노력한 결과, 수로기술인력 전문교육기관으로 성장하기 위한 기초는 일부 확보하였으나, 연구 활동의 성과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주요사업별 환류 활동은 적절하게 수행되었는가?

○ 기관은 환류활동을 위한 자체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주기적 실적 점검과 평가를 기초로 개선 노력을 수행하였으며, 자체평가에 기초한 개선 외에도 전년도 경영평가 지적사항을 세부평가내용별로 분류하고 내·외부의 의견수렴을 기초로 계획을 수립하여 개선하고자 노력하였다.

- 그런데 경영평가 결과와 기관의 일부 개선노력 간 연계성 확보가 미흡하여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수로기술 연구역량 강화의 계량지표 개선'의 경우 실용화, 상용화 등과 관련된 성과지표의 제시를 의미하나, 기관은 논문게재건수를 성과지표로 설정하였다.

(5) 주요사업 범주의 계량지표의 구성 및 목표수준은 적정한가?

○ 기관은 '전자해도 업데이트 오류율 최소화(8점)'(선박의 안전항해를 위한 정보 제공사업), '고품질 수로조사 자료 생산기반 강화(4점)', '수로조사 성과심사 업무 실

적(6점)'(이상 고품질 수로조사 자료 생산체계 구축사업), '수로기술 연구 활동능력 향상(2점)'(수로기술 연구역량 강화사업) 등을 주요사업의 계량지표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목표설정은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을 기준으로 목표 부여(편차) 방식(2δ 수준)을 적용하였다.

○ 동 지표들의 기관 설립목적(임무)와의 연계성이 인정되며, 목표수준의 설정은 비교적 적극적인 편으로 평가된다.

- 다만 기관 개선 노력에 불구하고, 사업의 변화 반영, 핵심기능 중심의 지표 관리, 그리고 목표설정의 적정성 확보 등 지표체계에 대한 중장기적 차원의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을 위한 기관의 노력을 " E+ "로 평가한다.

2. 계량지표

(1) 전자해도 업데이트 오류율 최소화

○ 본 지표는 전자해도 업데이트의 제작 오류건수를 최소화하여 업무처리능력 향상을 평가하는 것으로서, 최고목표 0.000% 대비 0.957%으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다.

- 구체적으로 전년대비 업데이트 건수가 약 39.4%(2,848건→3,970건) 증가하였음에도 오류건수가 약 8.6%(35건→38건) 증가하여 오류율은 0.271% 감소하였다. 특히 최근 5년간 오류율이 2012년 6.804%, 2013년 3.759%, 2014년 1.397%, 2015년 1.228%, 2016년 0.957%로 지속 감소한 것은 기관 노력의 성과로 판단된다.

연도	평가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점	가중치	득점
2016	오류건수 / 업데이트건수 ×100	목표부여 (편차)	최고: 0.000 최저: 5.606	0.957	86.337	8	6.907

(2) 고품질 수로조사 자료 생산기반 강화

○ 본 지표는 고품질 수로조사 자료 생산을 위한 해양관측자료 결측율 최소화실적을 평가하는 것으로서, 최고목표 1.405% 대비 4.287%으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

였다.

- 구체적으로 전년대비 유지관리 해양관측시설이 약 18.2%(44개소→52개소) 증가하였음에도 결측률은 0.058% 감소하였다. 최근 4년간 오류율이 2013년 2.715%에서 2014년 6.318%로 상승하였다가 2015년 4.345%, 2016년 4.287%로 감소한 것은 긍정적이나, 원격전원제어기 설치 확대 등을 감안할 때 오류율 감소를 위한 지속적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연도	평가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점	가중치	득점
2016	합계(100%)- 당해연도 수집률	목표부여 (편차)	최고 : 1.405 최저 : 7.285	4.287	60.8	4	2.432

(3) 수로조사 성과심사 업무 실적

○ 본 지표는 성과심사 업무능력 향상을 통한 심사업무 처리실적을 평가하는 것으로서, 최고목표 186.890 대비 138.306으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다.

- 구체적으로 전년대비 수로조사거리가 약 2.1% 감소(125,498.270㎞→122,815.630㎞)한 반면 성과심사일수는 약 12.0%(1,009일→888일) 감소하여 실적은 약 11.2% 증가하였다. 최근 5년간 심사 실적이 2012년 52.263, 2013년 68.911, 2014년 71.577, 2015년 124.379, 2016년 138.306으로 지속 증가한 것은 기관 노력의 성과로 판단된다. 다만 수로조사 거리가 사업발주의 하향세로 인해 국가기본도를 제외하면 매년 물량이 약 17.1% 감소하고 있고, 국가기본도 사업도 2018년 이후 종료 예정임에 따라 성과지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연도	평가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점	가중치	득점
2016	수로조사거리(km) / 성과심사일수	목표부여 (편차)	최고 : 186.890 최저 : 61.868	138.306	68.917	6	4.135

(4) 수로기술 연구 활동능력 향상

○ 본 지표는 해양(수로)분야 연구와 신기술 개발 추진 및 교육훈련 연구사업 등을 통해 해양(수로)기술 연구 역량향상을 평가하는 것으로서, 최고목표 9.239 억원 대비 10.106억 원으로 목표를 달성하였다.

- 구체적으로 전년대비 외부연구비 수주액이 약 81.3% 증가(5.576억 원→10.106억 원)하였으며, 최근 6년간 수주 실적이 2011년 4.915억 원에서 2012년 0.901억 원

으로 감소하였다가 2013년 1.579억 원, 2014년 2.652억 원, 2015년 5.576억 원, 2016년 10.106억 원으로 대폭 증가한 것은 기관 노력의 성과로 판단된다. 다만 연구기관 협업 등을 통해 수주 실적을 제고한다고 해도 기관의 한정된 역량을 감안할 때 적정 수주 실적에 대한 분석을 통해 중장기적 측면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연도	평가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점	가중치	득점
2016	외부연구비 수주액(백만원)	목표부여 (편차)	최고: 9.239 최저: 1.913	10.106	100	2	2